

담당부서 :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(로우라인 현장시찰)	도시공간개선반장	안재혁	2133-7640
	도시공간설계팀장	윤근주	2133-7624
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(한인단체 오찬간담회)	국제교류담당관	백운석	2133-5260
	국제정책팀장	조혜정	2133-5262
	미주구주팀장	나형선	2133-5284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4매

## 서울시, 뉴욕 '로우라인'에서 지하공간 재생방안 모색

- 북미 순방 중 박원순 시장 5일(월) '로우라인(Lowline)' 프로젝트 현장시찰
- 방치된 옛 전차 터미널 지하를 '최초의 지하공원'으로 재생... '21년 완공
- 도심 인프라 활용, 친환경, 지역발전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맥락 같이해
- 청년·지역 고등학생 참여, 민간주도 사업추진...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주목

- 서울시가 「서울역 7017 프로젝트」, 「다시세운 프로젝트」, 「마포 석유 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」 등 과거 산업화 시대 유산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·문화 공간으로 종합재생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, 박원순 시장이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미국 뉴욕의 도시재생 현장을 찾았다.
- 7박9일 일정으로 북미 순방길에 오른 박원순 시장은 5일(월) 오전 11시〈현지시간〉 첫 번째 방문지인 뉴욕에서 오는 2021년 전체 개방을 앞둔 '로우라인(Lowline)'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축소판인 '로우라인 랩(Lowline lab)'을 시찰하며 순방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.

- '로우라인' 프로젝트(2012~2021)는 1948년 이후 방치된 옛 전차 터미널 지하공간(4,046㎡)을 개조해 세계 최초의 지하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.
- 이 프로젝트는 이민자, 예술가 등 다양한 거주자가 혼재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확장하고 폐선된 전차 터미널까지 방치되면서 도시환경이 악화될 수 있었던 상황을 뉴욕시와 시민들이 도시재생을 통해 극복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.
- 지난 '14년 박 시장이 방문한 바 있는 뉴욕의 '하이라인(Higline)'이 지상의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이라면 '로우라인'은 최초의 지하공원 조성으로 지하공간 재생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이다. 도심 인프라 활용, 거버넌스, 친환경, 지역발전 등 서울시 도시재생을 관통하는 키워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.
  - '로우라인'은 첨단장비를 이용해 태양광을 지하 20피트(6.1m) 깊이로 끌어들이며 70종 이상, 3,000가지가 넘는 식물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.
- 이중 거버넌스와 관련해 '로우라인'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(Kick Starter)를 통해 나사(NASA) 인공위성 엔지니어 출신 제임스 램지(James Ramsey)와 3,300명의 후원자가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, 현재는 제임스 램지가 주도하는 팀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가고 있다.

□ 특히, 초기 구상단계에서 청년들과 지역 고등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,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.

○ '로우라인'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(Kick Starter)를 통해 나사(NASA) 인공위성 엔지니어 출신 제임스 램지 (James Ramsey)와 3,300명의 후원자가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, 현재는 제임스 램지가 주도하는 팀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어나가고 있다.

□ 이날 현장시찰에는 로우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팀 로우라인(Team Lowline)의 대표인 제임스 램지(James Ramsey)와 디자인을 책임지는 파트너겸 디자인디렉터 박기범씨가 동행해 공원 조성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.

□ 서울시는 로우라인 같은 외국의 창의적 도시재생 사례를 서울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도심 내 유휴 인프라 시설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
□ 아울러,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도심 내 유휴시설 재생사업 사례를 모아 '2016 서울건축문화제', '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' 등 국내·외 주목할 만한 도시건축 행사에 관련 계획안 등을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박 시장은 13시<현지시간> 뉴욕경제인협회, 뉴욕한인회 등 뉴욕 소재 주요 한인단체장 3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인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조언도 구했다.

□ 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멀리서 고국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애타게 노력하는 동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, 마음만큼은 늘 가까이서 서울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”고 말했다.